

# 농진청,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농가 현장 목소리 들어

## 이승돈 청장, 한우농가 방문... 섬유질배합사료 제조 현장 점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4월 1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한우농가(홍도농장)를 방문해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제조 현장을 점검하고, 농업인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 청장은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원료 투입 및 배합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했다. 이어 한우농가가 겪는 어려움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2년 귀농해 한우 사육을 시작한 홍도농장 김성훈 대표는 초기에는 사료비 부담과 노동력 부족, 한우 사양관리 어려움 등으로

고민이 많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촌진흥청 교육을 통해 2024년부터 자가 섬유질배

합사료(TMR)를 도입한 결과, 사료비를 크게 절감하고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 한우농가 TMR 제조 현장 점검

한, 여러 농가 사례를 참고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농가들과 정보를 나누는 과정에서 큰 힘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홍도농장은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도입 이후 한우 출하 월령을 약 1.9개월 단축하는 효과를 봤다. 육질 최고 등급(1++ 등급) 출현율은 23.7%포인트(37.5%→61.2%) 개선됐고, 사료비는 약 27% 절감하는 등 뚜렷한 경영 개선 효과를 거뒀다.

이 청장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평소 농가에 필요한 기술과 지원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피겠다."라며 "관련 교육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 "화훼산업 살려야"... SECA 대응 논의 본격화

## 자조금협의회, 여야 의원 간담회... 산업 현안 제도 개선 촉구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서용일, 이하 자조금협의회)는 한국 에과도르 SECA(전략적경제협력협정) 국회 비준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 간담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자조금협의회는 올해 들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과 SECA 관련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자조금협의회는 지난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승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군 예산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SECA 대책'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서용일 자조금협의회 회장과 강승규 의원, 유석용 한국화훼농협 조합장,

정수영 경기도 장미연구회 회장이 함께 했다. 이날 자조금협의회는 강승규 의원과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방향과 SECA 국회 비준 관련해서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화훼단체 대표들은 작금의 화훼산업 현황과 과제를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 농사용 전기요금 문제,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정탁금지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강승규 의원은 "SECA 국회 비준과 관련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용일 회장은 "자조금협의회는 SECA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계속 진행할 것이며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과 우리 농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지난 3월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승규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SECA 대책' 간담회를 진행했다(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제공)

# 농식품부,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침 개편

## 일반 RPC도 시설 현대화 지원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7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RPC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1 시·군 내 1개의 통합 RPC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고품질쌀유통활성

화 사업을 통합 RPC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RPC 통합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RPC의 시설 노후화가 지속됨에 따라, 이번에 지침을 개편했다.

우선 일반 RPC(미통합 농협 RPC)도 가공시설 현대화와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을 통

해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에 참여하지 못한 중·소규모 RPC의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1 시·군 내 2통합 RPC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1개 시·군에 1개의 통합 RPC가 있는 경우, 잔여 RPC 및 농협이 모두 통합하지 않으면 신·중축 및 개보수 지원이 제한됐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잔여

RPC와 잔여 농협의 각 75% 이상(개소 수 기준)이 통합되면 1 시·군 1통합과 동일하게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통합을 희망하는 RPC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단계적인 완전 통합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농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터"

## 농촌일손부족해소에 선도적 역할 수행

농협(회장 강호동)은 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6년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 신상철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회장(세종강남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전국 300여명의 조합장이 참석했다.

농기계은행 사업이란 농협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회의에 앞서 25년 농기계은행 사업에서 사업추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10개 농협이 표창을 수상했다.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증가와 농촌 인구 감소 등 농업 현장의 위기상황을 공유하고, 농기계은행 사업의 운영 혁신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협의회는 일관 농작업대행 사업1)과 자율주행 농기계 서비스 2) 등 농업인 체감형 지원 확대에 앞장서는 한편, 정부사업 연계 등을 통해 발농업 참여농협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내실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선도농협은 긴밀한 협력과 운영혁신을 통해 농업소득 3천만 원 시대를 여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 한농대 창업보육센터, 지산맛 사업 주관기관 선정

## 농생명 분야 창업 인재 양성 본격화...교육생 모집 및 사업화 추진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 이하 한농대) 창업보육센터는 농생명 분야 신성장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202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이하 지산맛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가 주관하는 전북도 지산맛 사업은 농생명 분야 신성장 산업의 창업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전북도 내에서는 한농대 창업보육센터가 유일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한농대의 농생명 분야 창업지원 역량과 현장 중심 교육 운영체계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농대는 농생명 분야 전문성과 창업지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예비 창업자 발굴부터 교육, 사업화 지원까지 연계하는 실천형 창업 지원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농대 창업보육센터는 오는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창업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25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교육생은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창업가 양성 교육(이론·실습)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농생명 산업 창업 실무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교육 이후 평가를 거쳐 우수 교육생 11명을 선발하고, 1인당 최대 1,500만 원의 초기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험분석 등 후속 지원도 제공해 창업 아이템의 구체

화와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교육생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덕호 한농대 창업보육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생명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과 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생명 분야 인재 양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불법소각, 당신의 생명도 태울 수 있습니다



아직도 논·밭두렁을 태우시나요?  
농촌에서의 불법소각, 모든 것을 태우는 어리석은 습관입니다.